



지난해 아람극장에서 공연을 가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무대인사 모습.



고양시 일산구 정발산 자락에 위치한 아람누리 전경.



고양 아람누리는 일산 호수공원, 거리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축제 등을 선보이는 등 도시 전체가 극장이 되는 '커뮤니티 씨어터'를 지향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고양 호수예술제'.

<고양 아람누리 제공>

# 세계수준 전용극장...서고 싶은 무대, 보고 싶은 무대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11) 고양 아람누리

지난 2007년 5월 개관한 고양아람누리(대표 안태경·아람누리)의 공이 크다. 물론 지난 2004년 문을 연 고양 어울림누리(문화예술교육 및 체육시설)의 덕도 빼놓을 수 없지만 도시의 '컬러'를 바꾼 건 아람누리다.

고양시는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개관 6~7년 전부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일대를 공연장 부지로 '찌뭉' 놓았다. 워낙 교통편이 좋다 보니 다른 '용도'로 욕심을 내는 건설업체들의 달콤한 제안이 많았지만 고양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발짝 더 나아가 고양시는 '엘 메이드 아트센터'를 내걸고 세계적 수준의 장르별(오페라, 클래식, 연극) 전문공연장을 짓는 대장정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오페라 전용극장이나 클래식 전용홀을 갖춘 공연장은 예술의전당이 유일할 정도로 다목적 공연장이 대세였다.

이 같은 고양시의 치밀한 계획으로 세상에 나온 아람누리는 단숨에 공연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총 건축비 150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4층(대지 5만4239㎡, 연면적 5만6359㎡) 규모로 지어진 공연장은 오페라 전용극장인 아람극장(1887석), 클래식 전용극장인 아람음악당(1449석), 가변형의 디지털 실험극장인 새라세극장(281~300석), 노루목 야외극장(1000석), 아람미술관,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을 거느리고 있다.

예술인들 사이에 아람누리는 한번쯤 서고 싶은 '꿈

3대 테너 호세 카레라스도 음향·무대시설 극찬  
러시아·베를린 등 유명공연 유치 서울 관객도 원정  
문화 불모지였던 고양시, 예술도시 아이콘 급부상

의 무대'로 통한다. 이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음향, 무대시설 때문이다. 오페라 전용극장인 아람극장은 114개의 스피커를 극장 곳곳에 배치해 객석 어디에서나 뛰어난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객석 간 거리가 36m로 보통 공연장 50m 보다 짧아 배우들의 움직임이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공조기를 각각의 좌석 밑에 설치해 공기순환과 냉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클래식 전용홀인 아람음악당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최적의 자연음을 전달하는 슈박스(신발 상자) 구조로 설계돼 은은하고 균일한 음향을 자랑한다. 아람음악당의 모든 객석이 로열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특히 내부 마감재인 단풍나무와 사운드 베너(흡음 커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음향의 잔향시간도 1.9~2.3초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지

난 2009년 5월 아람음악당에서 내한공연을 가진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는 "매우 훌륭한 자연음향을 내는 음악당(such a great acoustic hall)"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뛰어난 하드웨어 못지않게 차별화된 콘텐츠는 명품 공연장의 진가를 보여준다. 아람누리는 개관과 동시에 'only at 고양'을 표방하며 다른 공연장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나 슬라스키극장 오페라 초청작 시리즈, 중국 국립중앙발레단의 '홍등', 테너 이안보스트리치,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내한 공연 등을 유치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과거에는 고양시민이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서울 관객들이 고양을 찾아올 정도다. 개관 4년 만에 아람누리가 일궈낸 새로운 풍속도다.

올해 초 축제기획 전문가 안태경씨를 대표로 영입한 아람누리는 '커뮤니티 씨어터'(community theater)를 슬로건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말 그대로 고양시 전체가 극장이 되는 '예술의 일상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시 출연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만큼 '공공성'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는 물론 일산호수공원,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축제, 교육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학교밖 예술제상, 틴누리', '고양호수예술제',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음악, 유럽의 도시를 거닐다', '고양예술인 페스티벌', '예뮬 클래식', 청소년·교사를 위한 맞춤형 지역문화예술교육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아람누리는 오페라 전용극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대구, 대전 등 타 지역 공연장과 공동으로 오페라 '토스카',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발레 '춘향', 연극 '오셀로'를 제작해 극장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안태경 대표는 "개관이후 지난해까지가 공연장의 정체성을 알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의 시민적 네트워크'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할 때"라면서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양시의 브랜드 콘텐트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진현 문화전문기자 jhpark@kwangju.co.kr

# 유·스퀘어사우나

★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마사지)·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 위치: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062) 352-4455

**30%**  
10월 18일 까지  
**대세일**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엔틱식탁 이태리**

**엔틱좌탁·거실TV장 이태리**

**소파 이태리**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엔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도 직접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 062 226 7567